

농가, 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찾아 나서야...

본지 김한웅 부장



유가 및 사료곡물가격의 인상으로 생산비가 급등해 축산업계 전체가 아우성이다. 육계업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벌써 육계 생산비가 kg당 1천700원대에 도달해 있고 연말까지 간다면 1천900원대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더욱이 유류가격(면세유)의 급등은 이제 더 이상 겨울에는 닭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는 자조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육계 계열화 사업체들로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무창계사의 경우 전체 육계사육농가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설현대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보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더욱이 AI 파동으로 인한 닭고기 소비급감으로 업계 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져 원자재 가격인상에 대한 논의조차 일시적으로 중단되다시피한 상황이다 보니 답답한 것이 한 둘이 아니다.

최근 본회에서는 생산책임자들이 모여 계약사육농가에게 지급할 난방비 인상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무엇을 어떤 형태로 얼마를 보전해줘야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였다.

그러나 2~3년전 만해도 몇 백원대에 머물렀던 면세유 가격이 l당 1천원선을 훌

쩍 넘어버리고만 처지이다 보니 쉽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업계의 현실이다.

물론 원가 인상분만큼 닭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현재 업계의 실정으로는 이마저도 결코 녹록치 않은 처지다.

최근 닭고기 최대 성수기인 복(伏) 대목을 전후로 폭염으로 인해 닭고기 소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육계가격이 2천원 선까지 올랐다.

외부에서는 닭고기가 품귀현상을 빚어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육계생산원가가 1천700원대까지 솟구친 점을 감안한다면 불과 1년 전과 비교해볼 때 조금은 초라해지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다.

현 상황을 과감히 탈피하여 육계가격결정구조가 변화하지 못할 경우 육계를 사육하는 농가도, 또 이를 가공 판매하는 계열화 사업체도 고물가 시대의 피해자로 동반 추락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올해 옥수수 작황이 좋고 국제 원유가격도 안정세로 돌아서 사정이 조금은 안정될 것이라는 관망도 내놓고 있으나 사료가격의 추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육계 생산비의 증가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욱이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 그리고 정계불안으로 인해 국내 서민경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리고 있다.

불경기의 여파로 소비가 전체적으로 위축되면서 닭고기 업계도 그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육계가격이 생산비를 웃도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이미 가격하락의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등 대량 수요처로 있어서는 그 사태의 심각성은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진다. 닭고기 업체들이 이미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닭고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생물을 기르고 생산하는 입장에서 당장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안팎으로 조여오는 위기상황에 계열화 사업체들은 사면초가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생산농가들은 농가들대로, 계열화 사업체들은 사업체들대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한다. 더 이상의 폭탄 돌리기는 산업 전체를 다시는 빠져 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

이미 몇몇 계열화 사업체들은 더 이상 손도 써보지 못하고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전개됐다.

이제는 남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